

MBC 귀중

2025년 정치·사회현안 여론조사(4차)

결과 보고서

2025. 5. 5.

일러두기

- 본 조사의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척도형 문항(예: 매우 + 다소)의 두 개 응답을 합산하여 제시하는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합산하여 반올림하였으므로 척도의 단순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언론 공표 혹은 인용 시에는 조사개요를 참고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 보도지침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장. 조사의 개요

I. 조사의 목적	6
II. 조사 설계	7
III. 조사 내용	8
IV. 표본의 특성	9

2장. 조사 결과 분석

I. 정당지지도 및 21대 대선 전망	11
1. 정당지지도	11
2. 투표참여 의향	
2-1. 투표 참여 시기	12
3. 21대 대선후보 선호도	13
3-1. 21대 대선후보 지지 강도	14
4. 당선 가능성	15
5. 21대 대선 가상대결	17

목차

II. 각종 현안	20
1. 범보수 단일화 의견	20
2. 범보수 단일화 후보 가상대결	21
3. 21대 대선 관련 의견	22
4. 21대 대선 가장 집중해야 하는 정책 분야	23
5. 이재명 후보의 좌우 포괄 선대위 영입 평가	24
6.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	25
7. 한덕수 관권선거운동 평가	26
8. 빅텐트론 실현 가능성 의견	27

1장

조사의 개요

I. 조사의 목적

II. 조사 설계

III. 조사 내용

IV. 표본의 특성

I.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주요 정치·사회현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여
MBC 보도용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조사의 목적 및 기대효과를 흐름도(Flow-Chart)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수집자료

- 정당지지도 및 21대 대선 후보
- 각종 현안



기대효과

전반적인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파악



보도 자료로 활용

II. 조사 설계

2025년 정치·사회현안 여론조사(4차) (2025. 5. 5.)

조사 의뢰자	MBC
조사 기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지역	전국
조사 기간	2025년 5월 4일 (1일간)
조사 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 방법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표본 크기	1,006명(가중값 적용 사례수: 1,006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별로 피조사자를 할당
응답률	15.4%(총 6,539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6명이 응답 완료)
가중치값 산출 및 적용방법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 (2025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3.1\%$ point

2025년 정치·사회현안 여론조사(4차) (2025. 5. 5.)

정당지지도 및 21대 대선 전망

- 정당지지도
- 투표참여 의향 및 시기
- 21대 대선후보 선호도 및 지지 강도
- 당선 가능성
- 21대 대선 가상대결

각종 현안

- 범보수 단일화 의견
- 범보수 단일화 후보 가상대결
- 21대 대선 관련 의견
- 21대 대선 가장 집중해야 하는 정책 분야
- 이재명 후보의 좌우 포괄 선대위 영입 평가
-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
- 한덕수 관권선거운동 평가
- 빅텐트론 실현 가능성 의견

IV. 표본의 특성

구분		실제조사 사례수	%	가중값 적용 기준 사례수	%
전체		(1,006)	100	(1,006)	100
성별	남성	(509)	51	(498)	50
	여성	(497)	49	(508)	50
연령	18세-29세	(150)	15	(153)	15
	30대	(154)	15	(150)	15
	40대	(171)	17	(174)	17
	50대	(201)	20	(198)	20
	60대	(177)	18	(178)	18
	70세 이상	(153)	15	(153)	15
지역	서울	(194)	19	(188)	19
	인천/경기	(330)	33	(326)	32
	대전/충청(세종)	(104)	10	(109)	11
	광주/전라	(93)	9	(97)	10
	대구/경북	(96)	10	(98)	10
	부산/울산/경남	(148)	15	(147)	15
	강원/제주	(41)	4	(41)	4

2장

조사 결과 분석

I. 정당지지도 및 21대 대선후보

II. 각종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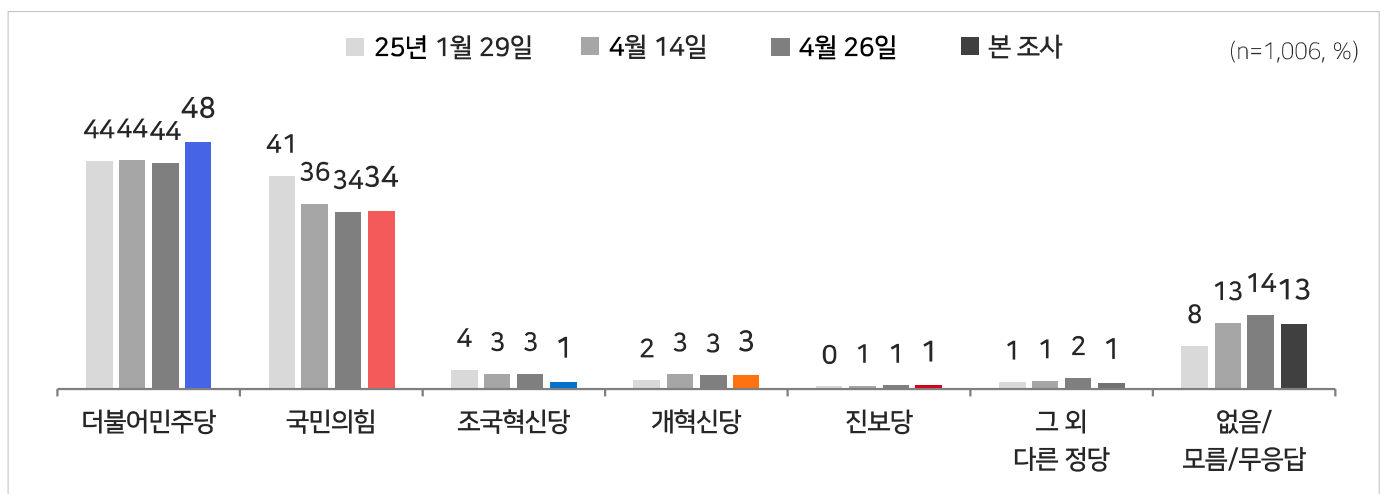
I. 정당지지도 및 21대 대선전망

1. 정당지지도

문1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순서는 무작위순입니다.
문1-1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생각되는 정당은요? 보기는 이전에 불러드린 순서와 동일합니다.

- 정당지지도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민의힘' 34%,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1% 순임('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13%).
☞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 '더불어민주당'은 40대(69%), 50대(63%), 광주/전라(71%)와 인천/경기(54%), 자영업자 및 화이트 칼라 종사자(각 56%), 중도 성향층(53%)과 진보 성향층(8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국민의힘'은 60세 이상(60대 50%, 70세 이상 57%), 대구/경북(60%), 부산/울산/경남(45%), 주부(42%), 보수 성향층(69%)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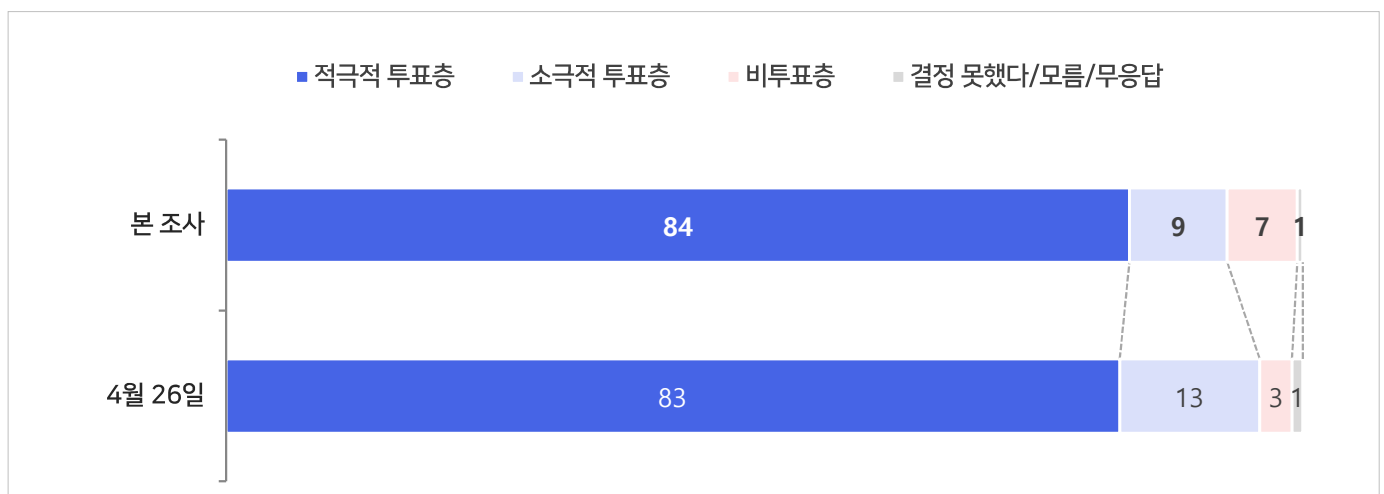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 외 다른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전체	(1,006)	48	34	1	3	1	1	13
연령	18세-29세 (150)	34	29	0	8	1	0	28
	30대 (154)	46	29	2	3	1	2	17
	40대 (171)	69	18	1	1	1	2	8
	50대 (201)	63	25	4	1	0	1	6
	60대 (177)	38	50	1	2	1	1	7
	70세 이상 (153)	28	57	0	1	0	1	13
지역	서울 (194)	48	34	2	3	1	0	12
	인천/경기 (330)	54	30	1	3	0	1	12
	대전/충청(세종) (104)	40	33	2	2	1	2	21
	광주/전라 (93)	71	11	2	3	1	2	10
	대구/경북 (96)	25	60	3	1	0	1	10
	부산/울산/경남 (148)	38	45	1	3	1	1	12
직업	강원/제주 (41)	51	32	0	0	5	0	12
	농/임/수산업 (28)	21	54	0	7	0	0	18
	자영업 (158)	56	31	1	1	0	2	9
	블루칼라 (182)	53	27	1	1	1	1	16
	화이트칼라 (270)	56	28	2	3	1	1	10
	주부 (172)	44	42	2	2	0	1	9
	학생 (80)	36	25	0	10	1	0	27
	무직/기타 (116)	29	54	0	2	1	1	13
이념 성향	보수 (314)	16	69	2	4	0	1	9
	중도 (382)	53	25	1	4	1	1	15
	진보 (244)	83	7	1	0	1	2	6
	모름/무응답 (66)	32	30	2	0	2	0	34

I. 정당지지도 및 21대 대선 전망

2. 투표참여 의향

문2 선생님께서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하실 생각이십니까? 투표하지 않으실 생각이십니까?

- 오는 6월 3일에 실시되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적 투표 의향층은 84%,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소극적 투표 의향층은 9%, '투표할 생각 없음(전혀+별로)'은 7%로 나타남(결정 못했다/모름/무응답 1%).
 -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472)의 93%, 국민의힘 지지층(n=329)의 8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함.
 - ☞ 한편, 20대(n=150)에서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67%로 타 연령 대비 특히 낮음.
- ✓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라는 적극적 투표층은 40대(92%), 60대(89%), 자영업자(93%), 화이트칼라 종사자(9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반드시 투표할 것 (적극적 투표층)	가능하면 투표할 것 (소극적 투표층)	비투표층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	결정 못했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6)	84	9	7	4	3	1
연령	18세-29세 (150)	67	20	11	8	3	1
	30대 (154)	84	10	6	4	2	0
	40대 (171)	<u>92</u>	4	4	1	4	0
	50대 (201)	87	6	6	4	2	1
	60대 (177)	<u>89</u>	7	4	2	2	1
	70세 이상 (153)	81	9	8	3	5	1
직업	농/임/수산업 (28)	74	11	15	8	7	0
	자영업 (158)	<u>93</u>	4	3	1	2	0
	블루칼라 (182)	76	11	12	6	6	0
	화이트칼라 (270)	<u>91</u>	5	3	2	1	0
	주부 (172)	86	9	5	3	2	1
	학생 (80)	65	24	11	9	2	0
이념 성향	무직/기타 (116)	79	12	7	2	4	2
	보수 (293)	86	7	7	4	3	0
	중도 (354)	82	10	7	4	3	0
	진보 (241)	92	7	1	1	0	0
지지 정당	모름/무응답 (52)	57	20	21	9	12	3
	더불어민주당 (472)	93	5	1	1	0	0
	국민의힘 (329)	86	9	4	3	1	0
	무당층 (88)	48	20	30	11	18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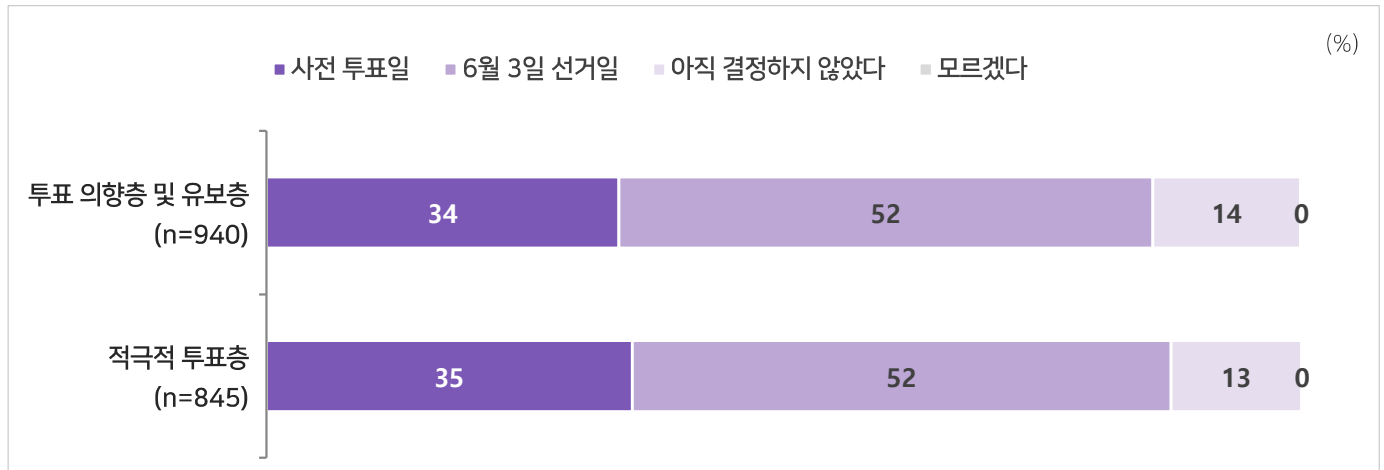
I. 정당지지도 및 21대 대선 전망

2-1. 투표참여 시기

문2-1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이고, 사전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일은 5월 29일과 30일입니다. 선생님께서 만약 투표를 하게 된다면 사전투표일에 투표 하시겠습니까? 6월 3일 선거일에 투표하시겠습니까?

- 투표의향층과 유보층(n=940)에게 투표 참여 시기를 조사한 결과, '6월 3일 선거일'은 52%, '사전 투표일'은 34%로 나타남.
 - 실제 투표층에 가까운 적극적 투표 의향층(n=845)에서는 '6월 3일 선거일'이 52%, '사전투표일'은 35%로 조사됨.
- ✓ '6월 3일 선거일'은 70세 이상(70%), 주부(62%), 보수 성향층(65%), 국민의힘 지지층(7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사전 투표일'은 50대(42%), 화이트칼라 종사자(42%), 진보 성향층(4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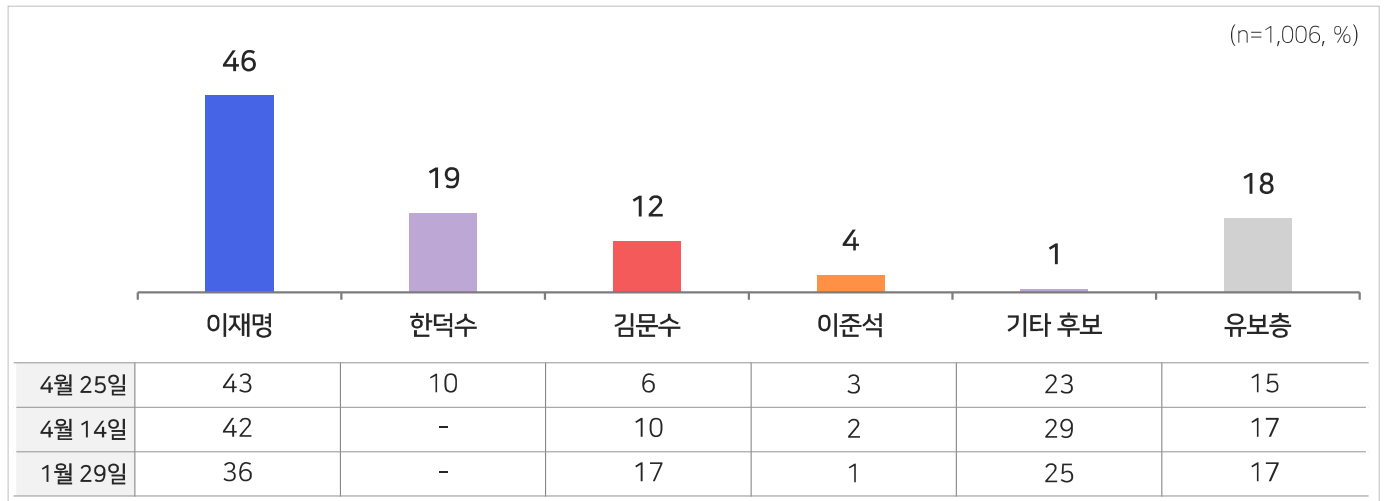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사전 투표일	6월 3일 선거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모르겠다
전체		(940)	34	52	14	0
적극적 투표층		(845)	35	52	13	0
연령	18세-29세	(133)	38	40	22	0
	30대	(144)	36	47	17	0
	40대	(164)	38	47	15	0
	50대	(189)	42	47	11	0
	60대	(170)	31	58	11	1
	70세 이상	(140)	17	70	12	1
직업	농/임/수산업	(28)	8	75	17	0
	자영업	(158)	40	49	10	1
	블루칼라	(182)	34	50	15	1
	화이트칼라	(270)	42	44	14	0
	주부	(172)	22	62	16	0
	학생	(80)	36	40	24	0
이념 성향	무직/기타	(116)	28	63	9	0
	보수	(293)	25	65	9	0
	중도	(354)	36	45	19	0
	진보	(241)	46	42	12	0
	모름/무응답	(52)	20	58	23	0
	더불어민주당	(472)	48	37	15	0
지지 정당	국민의힘	(329)	15	75	9	0
	무당층	(88)	25	50	26	0

I. 정당지지도 및 21대 대선 전망

3. 21대 대선후보 선호도

문3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다음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는 무작위순입니다.

- 21대 대선후보 선호도를 살펴보면, '이재명' 전 대표가 46%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19%, '김문수' 전 장관 12%, '이준석' 의원 4% 등의 순으로 나타남 ('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18%).
 ☞ 한편, 국민의힘 지지층(n=345)에서 '한덕수'(49%), '김문수'(31%) 순으로 높음.
 ☞ 타 연령대에 비해 20대(n=150), 30대(n=154)에서 유보층 비율이 각각 39%, 24%로 비교적 높았음.
- ✓ '이재명' 전 대표는 40대(69%), 50대(67%), 광주/전라(68%), 중도 성향층(52%)과 진보 성향층(7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60세 이상(60대 30%, 70세 이상 37%), 대구/경북(34%), 보수 성향층(3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김문수' 전 장관은 60세 이상(60대 20%, 70세 이상 17%), 대구/경북(20%), 부산/울산/경남(17%), 보수 성향층(28%)에서 높은 편임.



구분	사례수	이재명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	기타 후보	없음/모름/무응답
전체	(1,006)	46	19	12	4	1	18
연령	18세-29세 (150)	28	11	8	13	0	39
	30대 (154)	42	18	9	5	2	24
	40대 (171)	69	9	5	3	2	10
	50대 (201)	67	10	13	2	1	7
	60대 (177)	38	30	20	1	0	11
	70세 이상 (153)	26	37	17	1	1	19
지역	서울 (194)	49	23	11	4	0	13
	인천/경기 (330)	50	14	11	6	1	19
	대전/충청(세종) (104)	45	19	11	0	1	25
	광주/전라 (93)	68	11	3	1	1	16
	대구/경북 (96)	20	34	20	5	2	20
	부산/울산/경남 (148)	39	23	17	5	2	15
이념 성향	강원/제주 (41)	49	12	20	5	0	15
	보수 (314)	18	35	28	5	1	14
	중도 (382)	52	14	6	5	1	21
	진보 (244)	79	6	3	2	0	10
	모름/무응답 (66)	32	18	7	1	2	40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479)	90	1	1	2	0	6
	국민의힘 (345)	2	49	31	2	1	15
	무당층 (125)	12	13	7	3	2	64

I. 정당지지도 및 21대 대선 전망

3-1. 21대 대선후보 지지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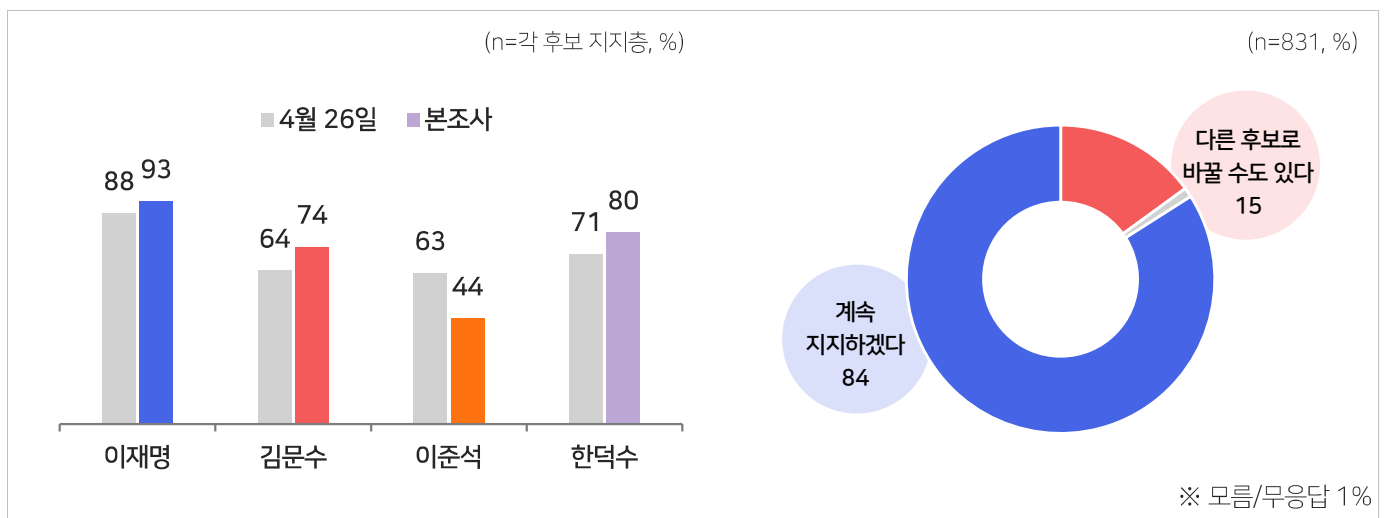
문3-1

(문3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밝힌 응답자에 한해)

그러면, 지금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후보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 응답자 5명 중 4명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84%)한 반면, '다른 후보로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은 15%로 나타남.
- 후보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전 대표 지지층(n=467)의 93%, '김문수' 전 장관 지지층(n=123)의 74%,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지층(n=189)의 80%가 지지 후보에 대한 계속 지지 의향을 밝힘.

- ✓ '계속 지지하겠다'는 50대(90%)와 60대(9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다른 후보로 바꿀 수도 있다'는 20대(40%), 부산/울산/경남(22%)에서 비교적 높은 편임.



구분	사례수	계속 지지하겠다	다른 후보로 바꿀 수도 있다	모름/ 무응답
전체	(831)	84	15	1
연령	18세-29세 (93)	56	40	4
	30대 (116)	79	21	0
	40대 (153)	88	12	0
	50대 (187)	90	10	0
	60대 (158)	92	8	0
	70세 이상 (124)	85	14	1
지역	서울 (168)	87	13	1
	인천/경기 (267)	85	15	0
	대전/충청(세종) (78)	85	15	0
	광주/전라 (80)	90	9	1
	대구/경북 (77)	84	16	0
	부산/울산/경남 (126)	77	22	1
지지 후보	강원/제주 (35)	74	23	3
	김문수 (123)	74	26	0
	이재명 (467)	93	6	1
	이준석 (43)	44	56	0
	한덕수 (189)	80	2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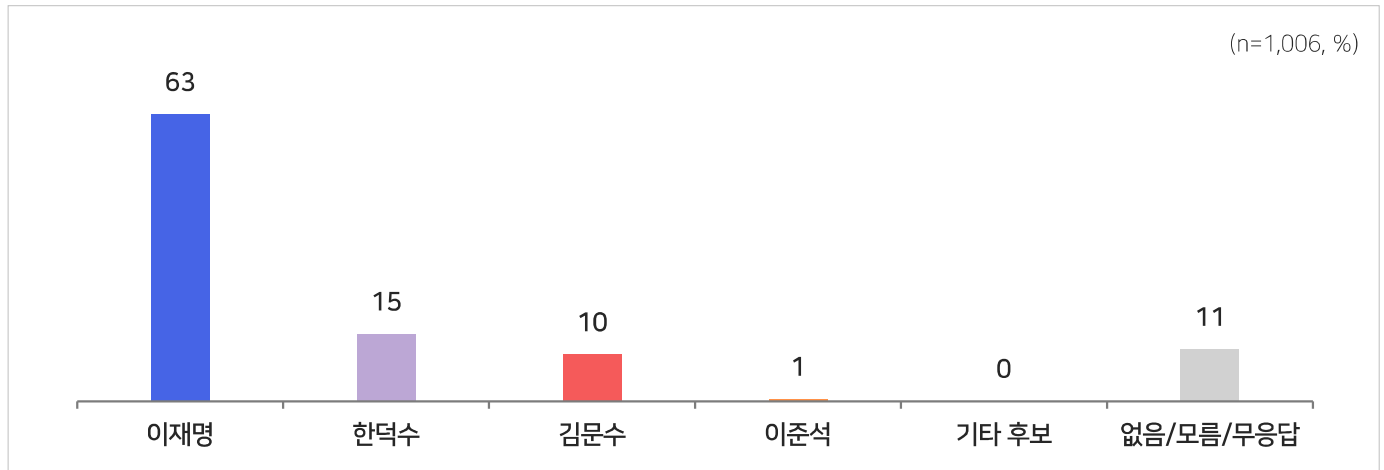
I. 정당지지도 및 21대 대선 전망

4. 당선 가능성

문4

그러면, 선생님의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대선에서 어느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는 무작위순입니다.

- 대선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가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15%, '김문수' 전 장관 10% 등의 순임('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11%).
- ✓ '이재명' 전 대표는 30대(71%), 40대(79%), 50대(76%), 광주/전라(77%), 중도 성향층(70%), 진보 성향층(88%)에서 특히 높음.
- ✓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60세 이상(60대 28%, 70세 이상 31%), 대구/경북(27%), 부산/울산/경남(21%), 보수 성향층(29%)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김문수' 전 장관은 60대(19%), 부산/울산/경남(15%), 국민의힘 지지층(27%)에서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이재명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	기타 후보	없음/ 모름/무응답
전체	(1,006)	63	15	10	1	0	11
연령	18세-29세 (150)	65	4	9	2	0	20
	30대 (154)	<u>71</u>	10	5	1	0	13
	40대 (171)	<u>79</u>	7	6	0	0	8
	50대 (201)	<u>76</u>	9	10	0	0	4
	60대 (177)	45	<u>28</u>	<u>19</u>	1	0	7
	70세 이상 (153)	37	<u>31</u>	12	1	1	19
지역	서울 (194)	66	18	8	0	1	7
	인천/경기 (330)	67	9	10	1	0	12
	대전/충청(세종) (104)	60	12	8	0	0	19
	광주/전라 (93)	<u>77</u>	8	5	1	0	8
	대구/경북 (96)	44	<u>27</u>	14	0	0	15
	부산/울산/경남 (148)	53	<u>21</u>	<u>15</u>	1	0	9
이념 성향	강원/제주 (41)	66	12	12	0	0	10
	보수 (314)	38	<u>29</u>	<u>22</u>	0	0	11
	중도 (382)	<u>70</u>	11	6	1	0	12
	진보 (244)	<u>88</u>	4	3	0	0	6
지지 정당	모름/무응답 (66)	46	13	6	3	2	31
	더불어민주당 (479)	<u>97</u>	1	0	0	0	2
	국민의힘 (345)	21	<u>40</u>	<u>27</u>	0	0	12
	무당층 (125)	41	6	3	2	1	47

I. 정당지지도 및 21대 대선 전망

6. 21대 대선 가상대결

문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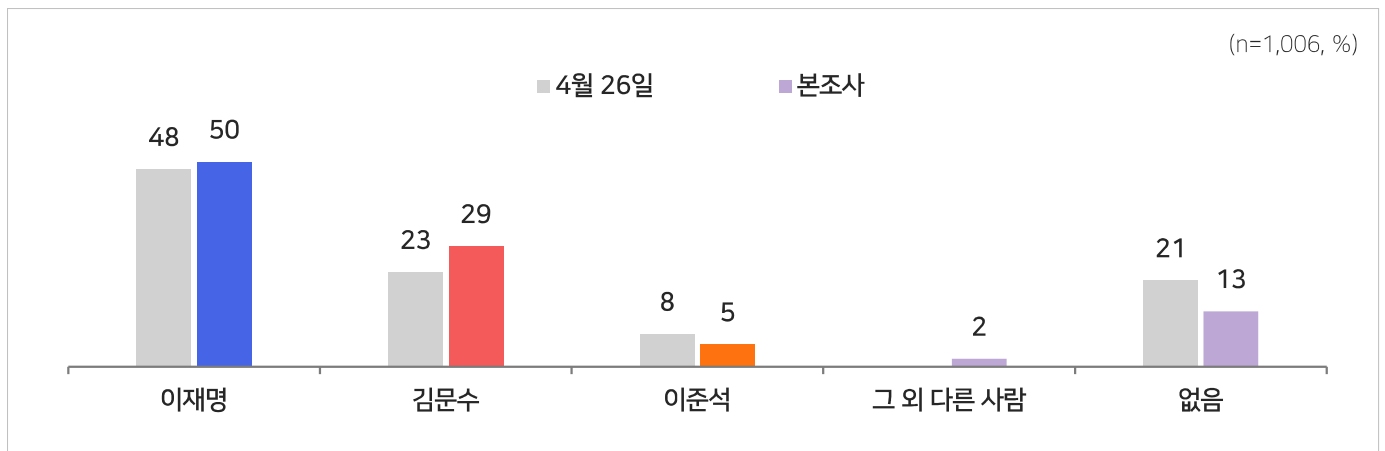
다음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3인의 다자 구도로 치러질 경우를 가정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5와 문6은 문항 로테이션, 보기 로테이션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A)이재명, (B)김문수/한덕수, (C)이준석의 다자대결 구도로 치러진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보기는 무작위 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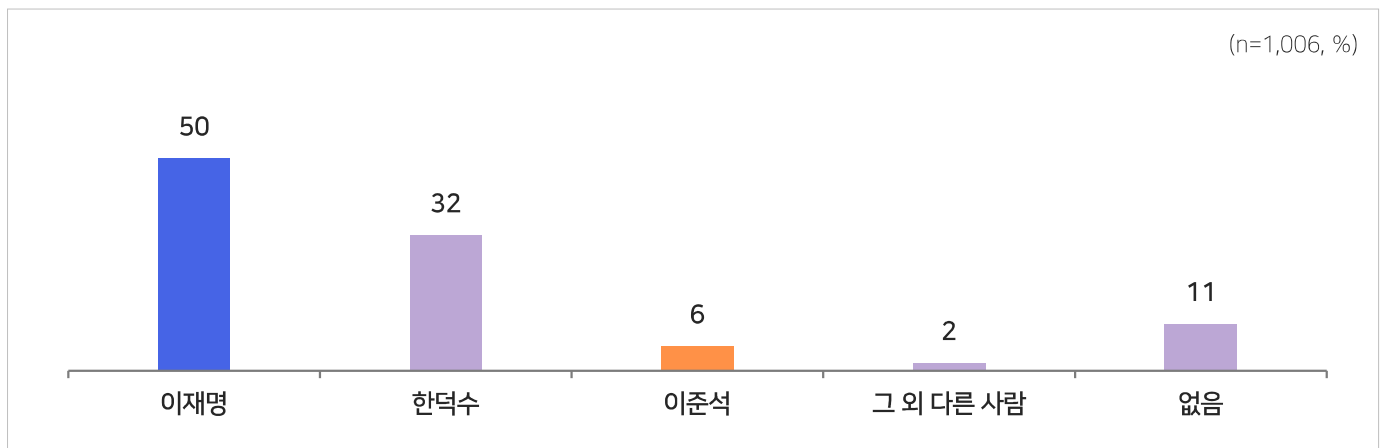
-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범보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3자대결 구도로 치러질 경우의 지지도를 살펴보면, '이재명' 전 대표가 모든 경우에서 앞섬.
 - (이재명 vs. 김문수 vs. 이준석)
'이재명' 전 대표 50%, '김문수' 전 장관 29%, '이준석' 의원 5%로 '이재명'이 '김문수' 대비 21%p 우세.
☞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이전인 지난 4월 26일 조사 대비 '김문수' 지지율이 6%p 상승함.
 - (이재명 vs. 한덕수 vs. 이준석)
'이재명' 전 대표 50%, '한덕수' 전 국무총리 32%, '이준석' 의원 6%로 '이재명'이 '한덕수' 대비 18%p 우세.

[이재명 vs. 김문수 vs. 이준석]



* 4월 26일 조사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 전 진행되었음.

[이재명 vs. 한덕수 vs. 이준석]



I. 정당지지도 및 21대 대선 전망

6. 21대 대선 가상대결

문5,6

다음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3인의 다자 구도로 치러질 경우를 가정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5와 문6은 문항 로테이션, 보기 로테이션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A)이재명, (B)김문수/한덕수, (C)이준석의 다자대결 구도로 치러진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보기는 무작위 순입니다.

- ✓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이 40대(73%), 50대(69%), 광주/전라(75%), 자영업자(61%), 화이트칼라 종사자(58%), 중도 성향층(55%), 진보 성향층(86%)에서, 김문수는 60세 이상(60대 47%, 70세 이상 48%), 대구/경북(47%), 부산/울산/경남(40%), 보수 성향층(61%)에서 특히 높음.
- ✓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이 40대(74%), 50대(69%), 광주/전라(73%), 자영업자(60%), 블루칼라 종사자(57%), 화이트칼라 종사자(59%), 중도 성향층(56%), 진보 성향층(85%)에서, 한덕수는 60세 이상(60대 50%, 70세 이상 53%), 대구/경북(58%), 부산/울산/경남(40%), 주부(40%), 보수 성향층(62%)에서 높게 나타남.
- ✓ 적극적 투표층(n=845)에서는 두 경우 모두 '이재명' 전 대표가 과반 이상을 차지함(각 55%).

구분	사례수	이재명 vs. 김문수 vs. 이준석						이재명 vs. 한덕수 vs. 이준석					
		이재명 (A)	김문수 (B)	이준석 (C)	그 외 다른사람	없음	(A)-(B) 격차	이재명 (A)	한덕수 (B)	이준석 (C)	그 외 다른사람	없음	(A)-(B) 격차
전체	(1,006)	50	29	5	2	13	21%p	50	32	6	2	11	18%p
적극적 투표층	(845)	55	31	4	1	9	24%p	55	33	5	1	6	22%p
연령	18세-29세 (150)	34	21	14	1	30	13%p	34	22	17	1	26	12%p
	30대 (154)	47	25	9	3	15	22%p	47	30	8	2	14	17%p
	40대 (171)	73	16	3	1	7	57%p	74	16	4	1	5	58%p
	50대 (201)	69	21	2	2	6	48%p	69	23	2	1	5	46%p
	60대 (177)	37	47	3	2	11	-10%p	39	50	3	3	6	-11%p
	70세 이상 (153)	31	48	3	2	16	-17%p	30	53	3	2	12	-23%p
지역	서울 (194)	52	29	6	3	10	23%p	53	34	4	1	7	19%p
	인천/경기 (330)	53	25	7	3	13	28%p	53	25	8	1	12	28%p
	대전/충청(세종) (104)	50	27	5	1	17	23%p	49	28	2	4	18	21%p
	광주/전라 (93)	75	13	2	0	11	62%p	73	15	1	1	10	58%p
	대구/경북 (96)	25	47	5	1	22	-22%p	25	58	5	1	12	-33%p
	부산/울산/경남 (148)	40	40	6	1	13	0%p	39	40	9	3	9	-1%p
직업	강원/제주 (41)	51	34	2	2	10	17%p	51	29	5	2	12	22%p
	농/임/수산업 (28)	21	57	8	0	14	-36%p	21	50	8	0	21	-29%p
	자영업 (158)	61	23	4	3	9	38%p	60	30	2	2	6	30%p
	블루칼라 (182)	55	24	4	2	15	31%p	57	25	5	2	12	32%p
	화이트칼라 (270)	58	27	5	1	9	31%p	59	27	6	1	8	32%p
	주부 (172)	47	35	5	2	11	12%p	46	40	3	2	8	6%p
	학생 (80)	36	19	15	2	28	17%p	34	20	20	2	24	14%p
	무직/기타 (116)	29	43	3	3	23	-14%p	29	48	5	2	16	-19%p
이념 성향	보수 (314)	19	61	8	2	10	-42%p	18	62	7	2	11	-44%p
	중도 (382)	55	19	6	3	17	36%p	56	23	7	3	11	33%p
	진보 (244)	86	6	2	1	5	80%p	85	8	2	0	5	77%p
	모름/무응답 (66)	33	22	6	0	40	11%p	36	26	6	0	33	10%p

I. 정당지지도 및 21대 대선전망

6. 21대 대선 가상대결

문5,6

다음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3인의 다자 구도로 치러질 경우를 가정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5와 문6은 문항 로테이션, 보기 로테이션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A)이재명, (B)김문수/한덕수, (C)이준석의 다자대결 구도로 치러진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보기는 무작위 순입니다.

- 3자 가상대결 구도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도는 29%, 한덕수 후보의 지지도는 32%로 두 후보 간 차이 (3%p)는 크지 않았으나, 대결 구도 변화에 따른 보수 후보 지지층의 결집도 차이는 이보다 더 컸음.
- 한덕수 후보 지지층의 김 후보 지지 결집력보다 김문수 후보 지지층의 한 후보 지지 결집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김문수 후보가 나설 경우, 한덕수 후보 지지층의 78%가 김 후보를 지지했으며 태도 유보는 13%였음.
 - 한덕수 후보가 나설 경우, 김문수 후보 지지층의 85%가 한 후보를 지지했으며 태도 유보는 5%로 낮아짐.
- 한편, 이재명 후보나 이준석 후보의 지지도는 가상대결의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이재명 vs. 김문수 vs. 이준석 대결 시: 한덕수 지지층의 김문수 지지도]

문6 \ 문5	사례수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그 외 다른 사람	없음
전체	(1,006)	50	29	5	2	13
이재명	(501)	97	1	1	0	1
한덕수	(320)	2	78	3	3	13
이준석	(58)	3	26	65	0	5
그 외 다른 사람	(18)	6	43	0	39	12
없음	(109)	5	15	4	2	74

[이재명 vs. 한덕수 vs. 이준석 대결 시: 김문수 지지층의 김문수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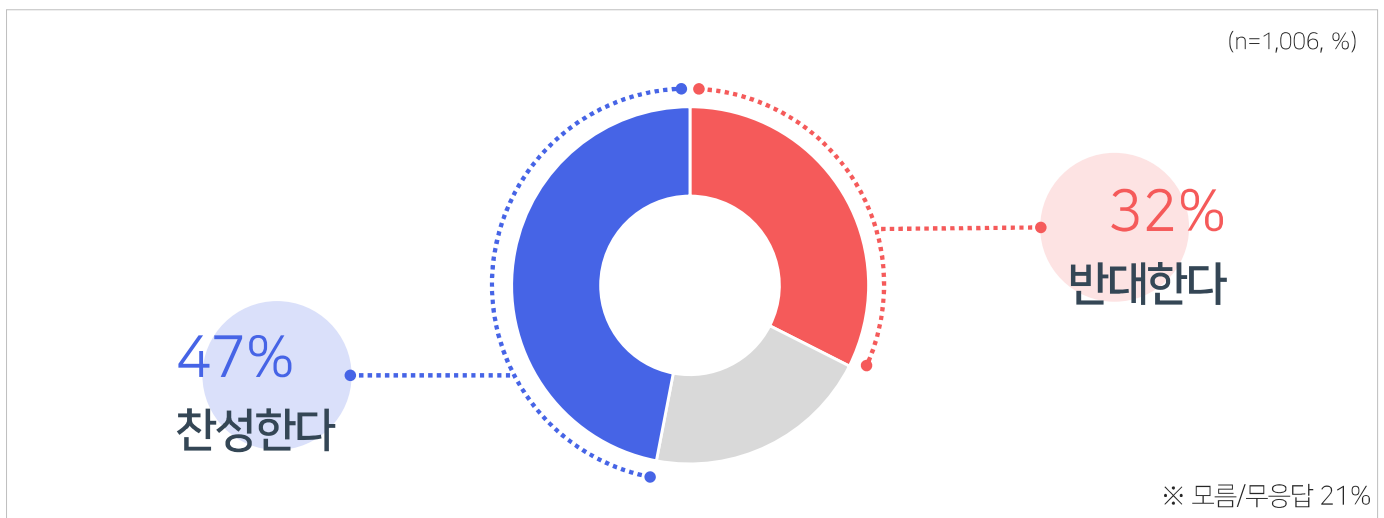
문5 \ 문6	사례수	이재명	한덕수	이준석	그 외 다른 사람	없음
전체	(1,006)	50	32	6	2	11
이재명	(500)	97	1	0	0	1
김문수	(295)	2	85	5	3	5
이준석	(56)	7	17	68	0	8
그 외 다른 사람	(20)	0	55	0	35	10
없음	(135)	4	31	2	2	60

II. 각종 현안

1. 범보수 단일화 의견

문7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출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가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남(모름/무응답 21%).
☞ 국민의힘 지지층(n=345)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92%로 나타남.
- ✓ '찬성한다'는 60세 이상(60대 56%, 70세 이상 63%), 대구/경북(68%), 부산/울산/경남(55%), 보수 성향층(7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반대한다'는 40대(42%), 50대(43%), 광주/전라(54%), 중도 성향층(37%), 진보 성향층(4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2%)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6)	47	32	21
연령	18세-29세 (150)	51	25	24
	30대 (154)	50	32	18
	40대 (171)	36	42	22
	50대 (201)	31	43	26
	60대 (177)	56	29	16
	70세 이상 (153)	63	20	16
지역	서울 (194)	46	33	21
	인천/경기 (330)	44	33	23
	대전/충청(세종) (104)	45	35	20
	광주/전라 (93)	27	54	18
	대구/경북 (96)	68	19	13
	부산/울산/경남 (148)	55	24	21
이념 성향	강원/제주 (41)	49	32	20
	보수 (314)	76	17	8
	중도 (382)	41	37	22
	진보 (244)	24	47	30
지지 정당	모름/무응답 (66)	35	29	37
	더불어민주당 (479)	18	52	30
	국민의힘 (345)	92	6	2
	무당층 (125)	39	27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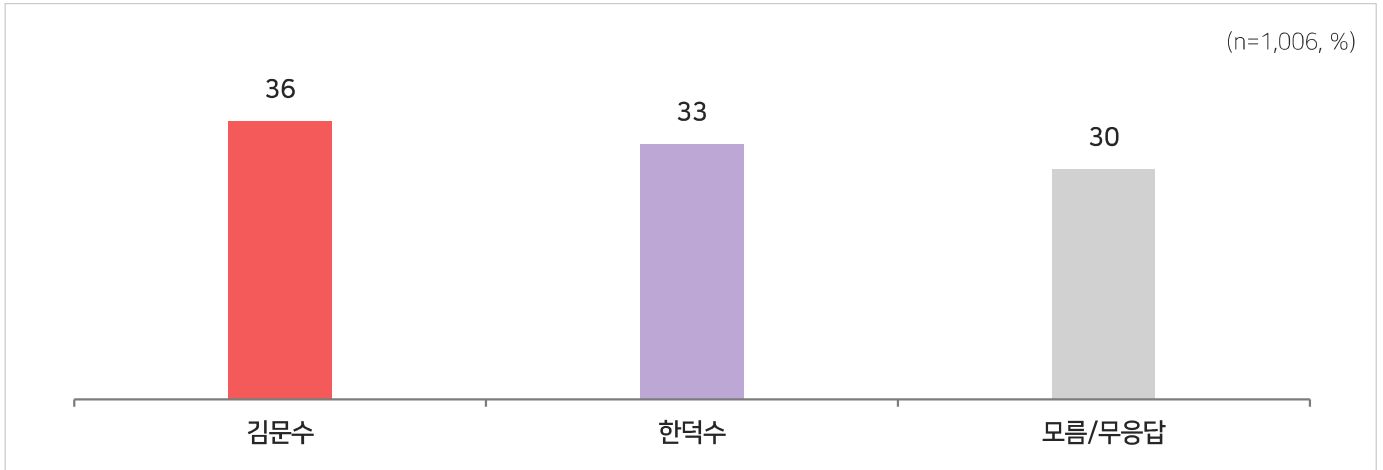
II. 각종 현안

2. 범보수 단일화 후보 가상대결

문8

만약 국민의힘에서 김문수와 한덕수가 단일화를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느 후보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 국민의힘에서 어느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이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김문수' 36%, '한덕수' 33%로 오차범위 내에 차이가 없었음('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 30%).
 - ☞ 국민의힘 지지층(n=345)에서는 김문수 30%, 한덕수 63%였으며, 무당층(n=125)에서는 각각 24%, 31%로 나타남.
- ✓ '김문수'는 40대(43%), 50대(44%), 인천/경기(41%),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한덕수'는 30대(40%), 70세 이상(50%), 대구/경북(51%), 보수 성향층(51%), 국민의힘 지지층(63%)에서 비교적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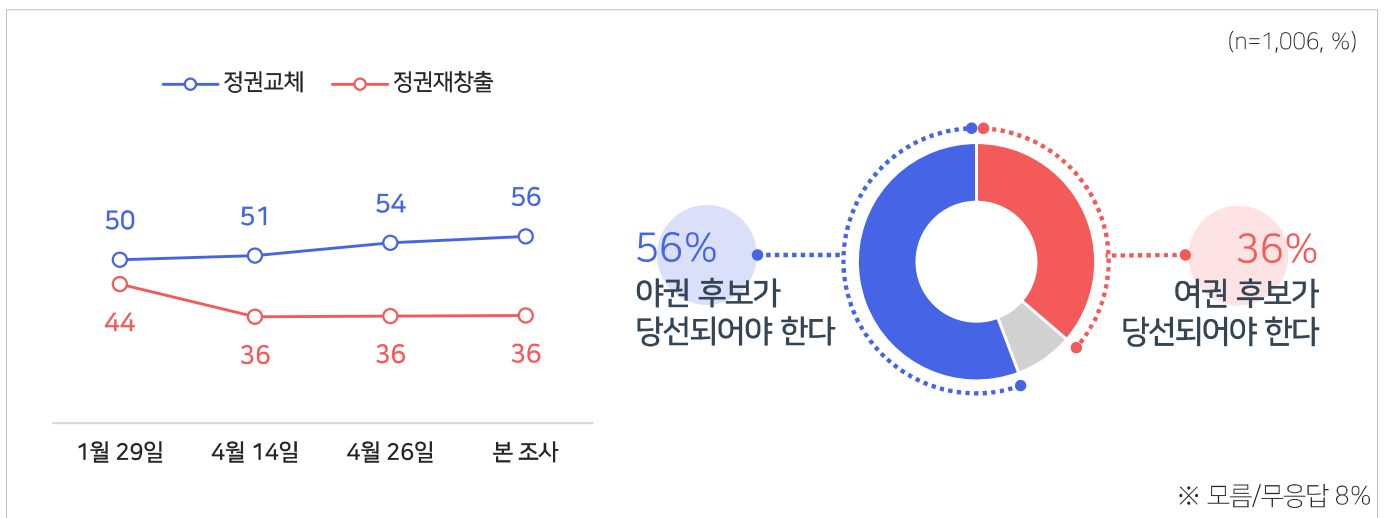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김문수	한덕수	모름/무응답
전체		(1,006)	36	33	30
연령	18세-29세	(150)	32	36	32
	30대	(154)	35	40	25
	40대	(171)	43	22	35
	50대	(201)	44	19	36
	60대	(177)	33	38	29
	70세 이상	(153)	27	50	22
지역	서울	(194)	37	35	28
	인천/경기	(330)	41	29	30
	대전/충청(세종)	(104)	33	30	37
	광주/전라	(93)	36	27	37
	대구/경북	(96)	27	51	23
	부산/울산/경남	(148)	33	38	29
이념 성향	강원/제주	(41)	41	27	32
	보수	(314)	36	51	13
	중도	(382)	37	28	35
	진보	(244)	39	22	39
	모름/무응답	(66)	25	26	49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479)	44	13	42
	국민의힘	(345)	30	63	7
	무당층	(125)	24	31	46

II. 각종 현안

3. 21대 대선 관련 의견

문9 21대 대선과 관련하여 다음 의견 중 선생님께서는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 21대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6%로, '정권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36%) 대비 20%p 높음(모름/무응답 8%).
☞ 1월 29일 조사 이후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상승함.
- ✓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40대(73%), 50대(72%), 광주/전라(76%), 중도 성향층(63%), 진보 성향층(89%)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정권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는 60세 이상(60대 52%, 70세 이상 55%), 대구/경북(56%), 부산/울산/경남(44%), 보수 성향층(6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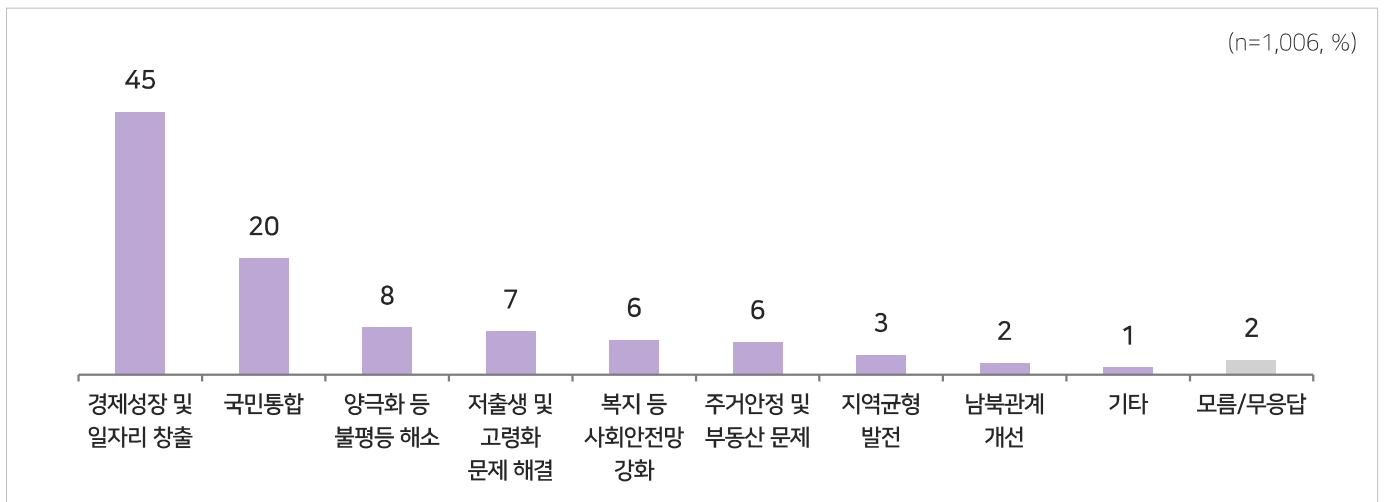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정권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6)	36	56	8
연령	18세-29세 (150)	31	56	13
	30대 (154)	35	55	10
	40대 (171)	23	<u>73</u>	4
	50대 (201)	25	<u>72</u>	3
	60대 (177)	<u>52</u>	43	5
	70세 이상 (153)	<u>55</u>	29	15
지역	서울 (194)	37	57	6
	인천/경기 (330)	34	59	8
	대전/충청(세종) (104)	33	58	9
	광주/전라 (93)	16	<u>76</u>	8
	대구/경북 (96)	<u>56</u>	31	13
	부산/울산/경남 (148)	<u>44</u>	49	7
이념 성향	강원/제주 (41)	37	59	5
	보수 (314)	<u>69</u>	25	6
	중도 (382)	28	<u>63</u>	9
	진보 (244)	10	<u>89</u>	1
지지 정당	모름/무응답 (66)	24	37	39
	더불어민주당 (479)	1	<u>96</u>	2
	국민의힘 (345)	<u>91</u>	5	5
	무당층 (125)	26	37	37

II. 각종 현안

4. 21대 대선 가장 집중해야 하는 정책 분야

문10 선생님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정책 분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보기 로테이션]

- 대선 후보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정책에 대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국민통합' 20%, '양극화 등 불평등 해소' 8%,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해결' 7% 등의 순으로 나타남(모름/무응답 2%).
- ✓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은 40대(56%), 50대(55%), 더불어민주당 지지층(5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국민통합'은 60세 이상(60대 28%, 70세 이상 32%), 보수 성향층(27%), 국민의힘 지지층(26%)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양극화 등 불평등 해소'는 진보 성향층(11%)에서 높은 편임.
- ✓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은 20대(16%), 30대(14%), 서울(11%), 무당층(1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국민통합	양극화 등 불평등 해소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해결	복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주거안정 및 부동산 문제	지역균형 발전	남북관계 개선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1,006)	45	20	8	7	6	6	3	2	1	2
연령	18세-29세	(150) 35	11	7	16	7	13	3	2	3	4
	30대	(154) 43	12	8	14	4	8	4	3	2	2
	40대	(171) 56	15	7	3	6	6	3	3	1	1
	50대	(201) 55	20	8	3	5	3	4	1	1	1
	60대	(177) 43	28	10	5	8	3	2	1	1	1
	70세 이상	(153) 33	32	7	5	6	2	4	3	0	8
지역	서울	(194) 44	22	7	11	4	6	2	1	1	2
	인천/경기	(330) 47	20	5	8	9	6	1	3	1	1
	대전/충청(세종)	(104) 44	19	9	6	2	9	8	2	1	1
	광주/전라	(93) 37	16	12	8	8	4	9	3	0	2
	대구/경북	(96) 46	23	9	3	3	3	3	2	2	5
	부산/울산/경남	(148) 46	15	10	7	5	3	5	0	3	5
이념 성향	강원/제주	(41) 39	27	12	0	7	7	2	2	2	0
	보수	(314) 43	27	7	8	4	5	1	3	1	1
	중도	(382) 47	17	7	8	6	6	5	2	1	1
	진보	(244) 45	17	11	5	7	6	5	1	1	0
	모름/무응답	(66) 35	5	6	10	9	6	0	2	1	26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479) 50	16	9	3	7	6	5	1	1	1
	국민의힘	(345) 44	26	7	8	3	4	1	3	1	3
	무당층	(125) 30	15	5	18	10	7	2	3	2	9

II. 각종 현안

5. 이재명 후보의 좌우 포괄 선대위 영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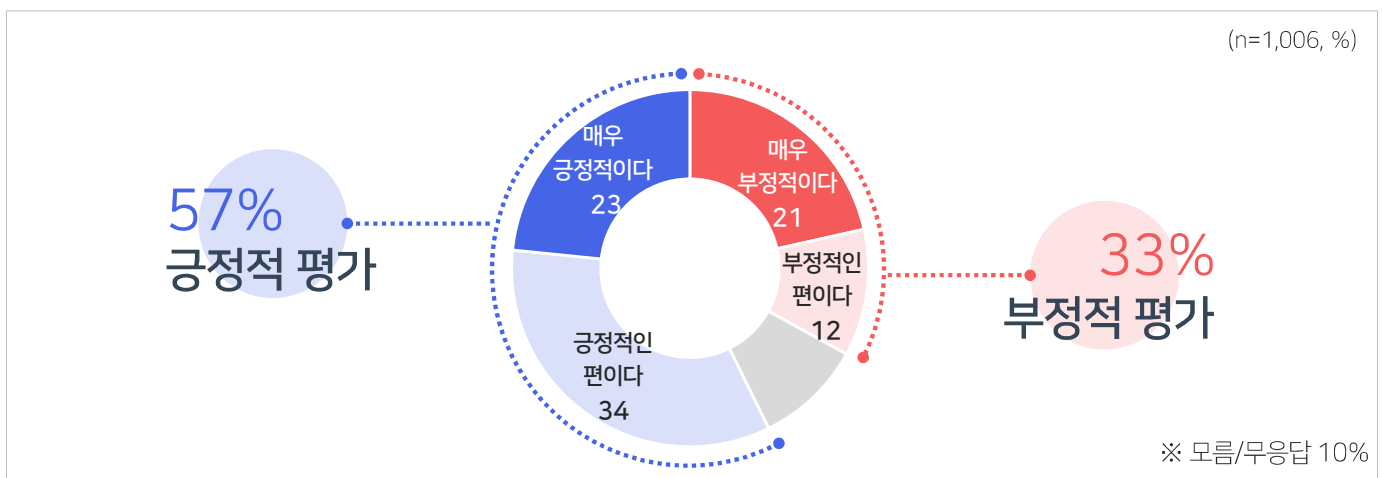
문11

이재명 후보가 최근 선거대책위원회에 보수 성향의 인물을 영입해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 것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후보의 보수 성향 인물 선대위 영입에 대해 '긍정적 평가'(매우+긍정적인 편)는 57%, '부정적 평가'(매우+부정적인 편)는 33%임(모름/무응답 10%).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479)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93%로 나타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n=345)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74%로 나타남.

- '긍정적 평가'는 40대(77%), 50대(72%), 광주/전라(81%), 중도 성향층(65%), 진보 성향층(8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부정적 평가'는 60세 이상(60대 50%, 70세 이상 49%), 대구/경북(48%), 보수 성향층(59%)에서 비교적 높음.



구분		사례수	매우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편이다	부정적인 편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종합평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모름/무응답
전체		(1,006)	23	34	12	21	57	33	10
연령	18세-29세	(150)	7	45	16	14	52	29	18
	30대	(154)	24	35	13	18	59	31	11
	40대	(171)	31	46	5	12	77	16	6
	50대	(201)	37	35	8	16	72	24	3
	60대	(177)	22	22	12	38	44	50	7
	70세 이상	(153)	16	19	18	32	35	49	16
지역	서울	(194)	22	36	15	19	58	34	8
	인천/경기	(330)	25	35	10	20	60	30	10
	대전/충청(세종)	(104)	22	31	11	26	53	36	11
	광주/전라	(93)	30	51	3	8	81	11	7
	대구/경북	(96)	15	23	20	29	39	48	13
	부산/울산/경남	(148)	20	28	11	30	48	40	12
이념 성향	강원/제주	(41)	32	34	12	17	66	29	5
	보수	(314)	9	22	20	39	31	59	10
	중도	(382)	27	39	8	17	65	25	9
	진보	(244)	39	46	6	7	84	13	3
	모름/무응답	(66)	16	18	11	17	34	28	38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479)	44	49	2	1	93	3
	국민의힘	(345)	4	14	21	53	18	74	9
	무당층	(125)	2	29	18	14	31	32	37

II. 각종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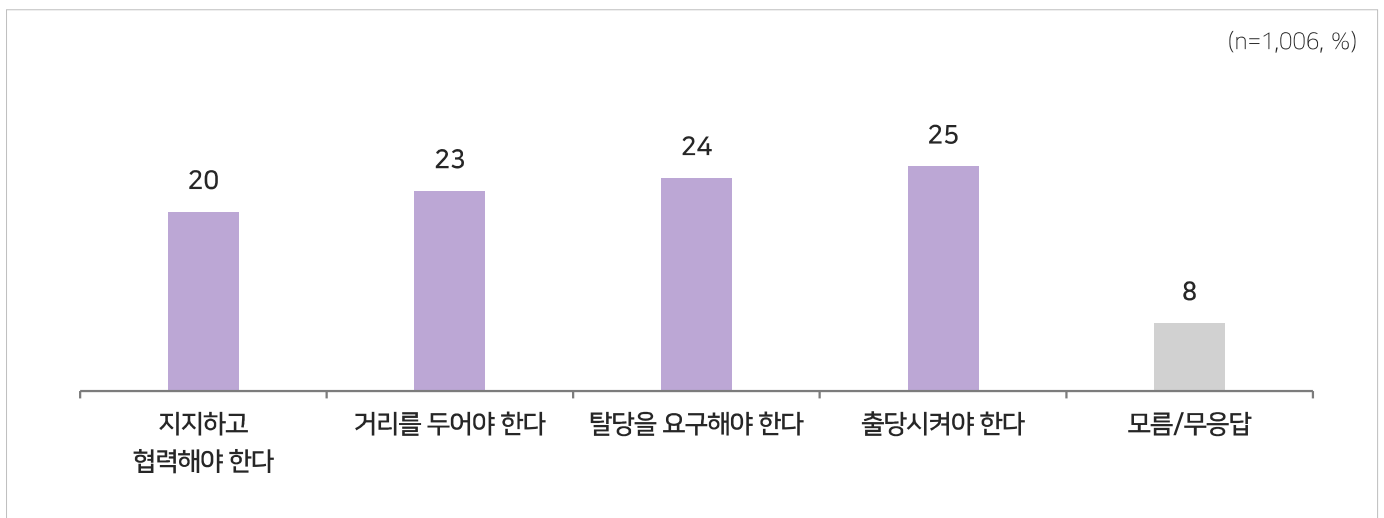
6. 국민의힘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

문12 선생님께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출당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25%,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 24%, '거리를 두어야 한다' 23%, '지지하고 협력해야 한다' 20%로 오차범위 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모름/무응답 8%).

☞ 국민의힘 지지층(n=345)에서는 '지지하고 협력해야 한다'가 48%로 높게 나타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479)에서는 '출당시켜야 한다',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41%, 35%로 나타남.

- ✓ '출당시켜야 한다'는 40대(37%), 50대(38%), 서울(31%), 인천/경기(30%), 진보 성향층(3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30대(32%), 광주/전라(35%), 진보 성향층(3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20대(44%), 중도 성향층(28%)에서 비교적 높음.



구분	사례수	지지하고 협력해야 한다	거리를 두어야 한다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	출당시켜야 한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6)	20	23	24	25	8	
연령	18세-29세	(150)	19	44	14	15	8
	30대	(154)	19	21	32	20	8
	40대	(171)	13	17	28	37	5
	50대	(201)	17	16	22	38	6
	60대	(177)	27	17	26	22	8
	70세 이상	(153)	26	24	23	16	12
지역	서울	(194)	17	21	27	31	5
	인천/경기	(330)	19	19	26	30	7
	대전/충청(세종)	(104)	19	26	20	27	8
	광주/전라	(93)	8	28	35	21	7
	대구/경북	(96)	34	28	14	11	12
	부산/울산/경남	(148)	24	25	22	22	7
이념 성향	강원/제주	(41)	34	15	17	22	12
	보수	(314)	41	23	15	15	7
	중도	(382)	13	28	24	28	7
	진보	(244)	7	17	35	37	3
지지 정당	모름/무응답	(66)	16	12	25	13	34
	더불어민주당	(479)	3	16	35	41	5
	국민의힘	(345)	48	27	9	7	8
	무당층	(125)	13	32	24	15	16

II. 각종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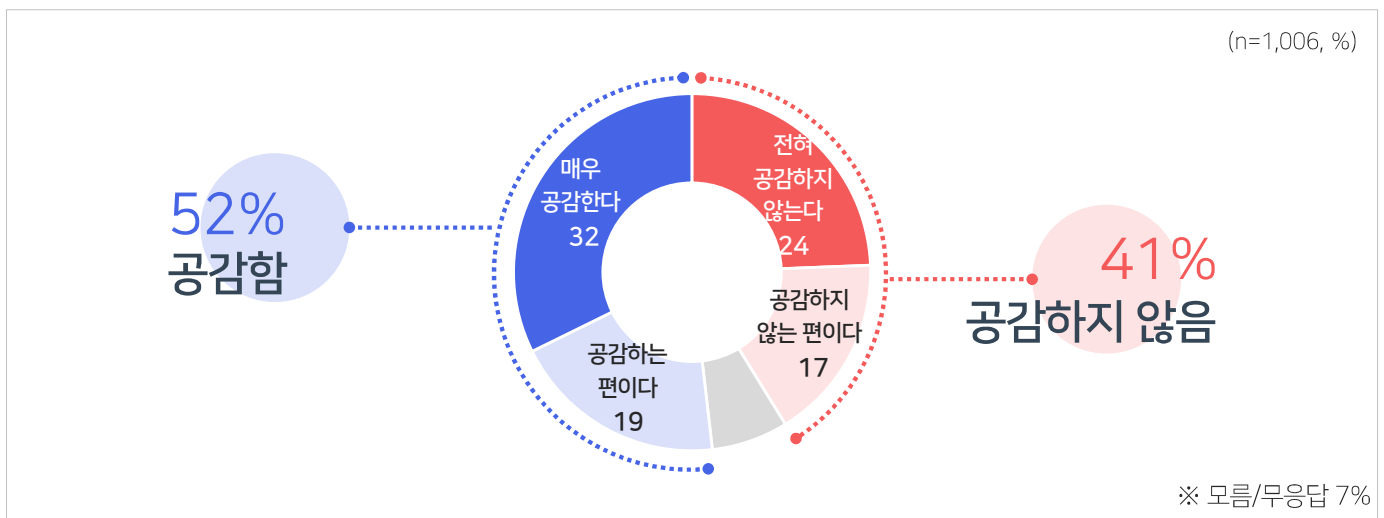
7. 한덕수 관권선거운동 평가

문13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안 거부권 행사, 경제, 민생, 안보, 외교를 넘나드는 광폭행보를 보이면서, 일각에서 사실상 관권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광폭행보가 관권선거운동이라는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매우+공감하는 편)는 52%, '공감하지 않는다'(전혀+공감하지 않는 편)는 41%임(모름/무응답 7%).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479)의 69%는 '공감한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n=345)의 61%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 '공감한다'는 40대(65%), 50대(61%), 중도 성향층(58%), 진보 성향층(64%)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 '공감하지 않는다'는 60대(50%), 대구/경북(52%), 보수 성향층(5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매우 공감한다	공감하는 편이다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종합평가		
							공감함	공감하지 않음	모름 /무응답
전체		(1,006)	32	19	17	24	52	41	7
연령	18세-29세	(150)	14	30	27	15	44	42	14
	30대	(154)	24	24	17	25	49	42	9
	40대	(171)	50	15	12	20	65	32	3
	50대	(201)	49	12	10	27	61	37	2
	60대	(177)	31	14	15	35	46	50	4
	70세 이상	(153)	19	24	23	23	42	46	12
지역	서울	(194)	34	17	18	22	50	40	10
	인천/경기	(330)	34	19	14	27	53	41	6
	대전/충청(세종)	(104)	32	21	17	23	53	40	7
	광주/전라	(93)	34	17	16	25	52	41	7
	대구/경북	(96)	18	24	21	30	41	52	7
	부산/울산/경남	(148)	36	20	16	22	57	38	5
	강원/제주	(41)	32	24	22	17	56	39	5
이념 성향	보수	(314)	20	19	24	33	39	57	5
	중도	(382)	36	22	15	22	58	37	5
	진보	(244)	49	15	12	20	64	32	4
	모름/무응답	(66)	8	23	16	14	31	29	40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479)	53	16	10	17	69	27	4
	국민의힘	(345)	12	21	24	38	33	61	5
	무당층	(125)	9	24	24	21	33	46	22

II. 각종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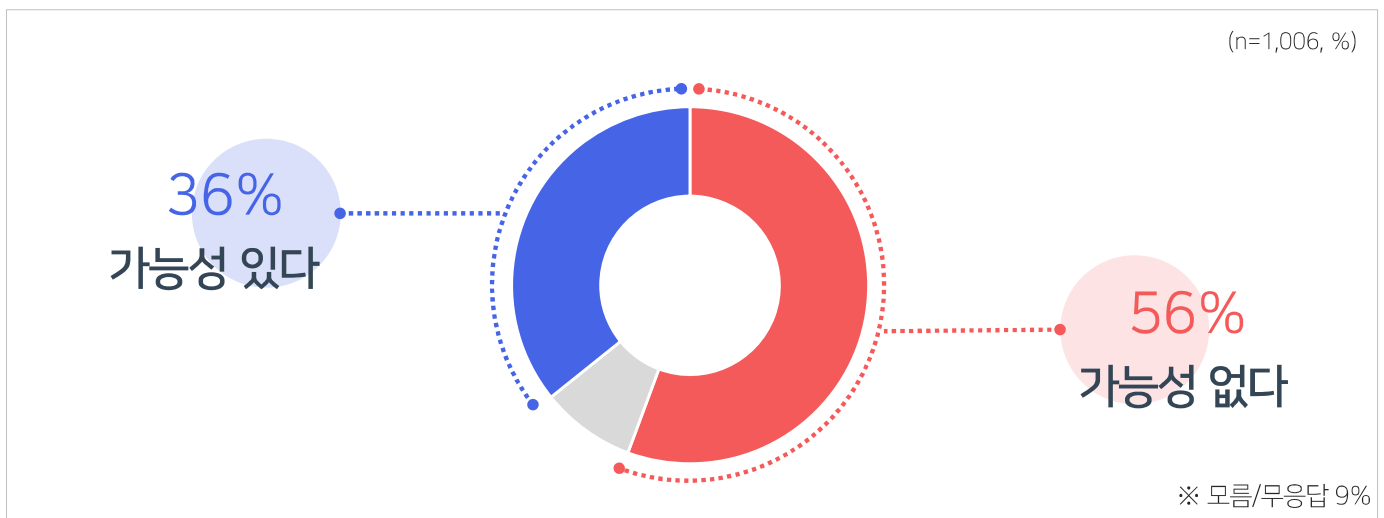
8. 빅텐트론 실현 가능성 의견

문14

정치권 일부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뭉쳐서 단일 후보를 내야 한다는 빅텐트론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반이재명 빅텐트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 반이재명 빅텐트론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 없다'는 응답이 56%로, '가능성 있다'는 응답(36%) 대비 20%p 높게 나타남(모름/무응답 9%).
 ☞ '김문수' 전 장관 지지층(n=123)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지층(n=189)에서 빅텐트론 실현 가능성이 각각 61%와 54%로 나타남.

- ✓ '가능성 있다'는 20대(44%), 대구/경북(48%), 보수 성향층(5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가능성 없다'는 50대(66%), 중도 성향층(62%), 진보 성향층(68%)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남.



구분	사례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6)	36	56	9
연령	18세~29세 (150)	44	49	7
	30대 (154)	36	55	9
	40대 (171)	34	62	4
	50대 (201)	29	66	5
	60대 (177)	40	49	10
	70세 이상 (153)	33	50	17
지역	서울 (194)	36	58	5
	인천/경기 (330)	34	57	8
	대전/충청(세종) (104)	32	60	8
	광주/전라 (93)	28	64	8
	대구/경북 (96)	48	39	13
	부산/울산/경남 (148)	35	55	11
이념 성향	강원/제주 (41)	49	41	10
	보수 (314)	50	42	7
	중도 (382)	32	62	6
	진보 (244)	26	68	5
	모름/무응답 (66)	26	32	41
지지 후보	이재명 (467)	22	71	7
	김문수 (123)	61	31	8
	이준석 (43)	32	68	0
	한덕수 (189)	54	37	9

2025년 정치·사회현안 여론조사(4차)

연구기관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발행명 MBC 2025년 정치·사회현안 여론조사(4차)

발행일 2025년 5월 5일

발행처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18, 석오빌딩
TEL : 02-3415-5100

<비매품>